



말씀을 실천해요!

나에게 ‘주님, 주님!’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.
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.

(마태 7, 21)



예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군중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신다고 깨우쳐 주세요.



예수님께서는 이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.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, 즉 사랑하는 것이에요.



누구든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튼튼하고 굳센 성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. 그 집은 폭풍도 견디어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.



독일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에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.
우리는 외롭거나 슬퍼하는 사람들,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행복한 한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어요.



우리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, 정원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산책했어요.



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찾아갔어요.
그 아이들이 아주 기뻐했는데 우리는 더 기뻤어요.